12월 11일 2018 동아스포츠대상 시상식 | 1 남자농구 영광의 얼굴은?



12월 11일 열리는 'CMS와 함께하는 2018 동아스포츠대상' 남자프로농구 올해의 선수상은 그야말로 각축전이다. 2017~2018시즌 맹활약했던 두경민(원주 DB), 김민수(SK 나이츠), 오세근(안양 KGC), 이정현(전주 KCC), 김시래(창원 LG·왼쪽부터)등 5인의 후보 모두 수상자로 손색이 없다. 스포츠동아 DB

팀 우승 선봉장이냐, 센터·슈터 경쟁이냐?

남자프로농구 올해의 선수상은 2017~2018시즌을 기준으로 한다. 농구와 배구는 매년 늦가을에 개막해 이듬해 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2018~2019시즌이 진행 중이지만 기준점을 이전 시즌으로 정해놓았다.

2017~2018시즌 정규리그에서는 원주 DB가 파란을 일으키며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챔피언결정전에서는 서울 SK가 DB에게 2연패 후 4연승을 거두며 통산 두 번째 챔피언 트로피를 손에 넣었다. 정규리그에서 DB를 우승으로 이끈 두경민(현 상무), 국내선수 중 최고의 기량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 센터 오세근(안양 KGC)과 슈터 이정현(전주 KCC), SK가 챔피언반지를 끼는데 있어 내·외곽에서 맹활약한 김민수 등이 2018년 올해의 선수 유력 후보들이다.

두경민은 DB의 확실한 에이스로 거듭나며 최고의 한 시즌을 보냈다. 이전 시즌까지만 해도 식스맨에 머물렀던 그는 이상범 감독 부임과 함께 팀의 에이스라는 중책을 맡아 엄청나게 성장했다. 정규리그 47경기에 평균 16.4점·3.8어시스트를 올렸다. 경기 평균 2.7개의 3점슛을 터트려 이 부문 1위를 차지했고, 국내선수 득점 랭킹 2위에 올랐다. 정규리그 최고의 선수인 MVP상도 거머쥐었다.

오세근은 '명불허전'이다. 2016~2017시즌 KGC의 우승을 견인했던 오세근은 2017~2018시즌에도 건재를 과시했다. 정규리그 40경기에 나선 평균 18.7점을 올렸다. 국내선수 득점 1위를 차지했는데 오세근 개인 한 시즌 최고 기록이었다. 리바운드에서도 평균 9.4개로 국내선수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 오세근이 부상을 입자 KGC는 플레이오프에서 힘을 내지 못했고, 4강 진출에 만족해야 했다.

리그 대표 슈터 이정현은 KCC로 이적한 첫 시즌이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따랐지만 상대팀들의 집중 견제에도 51경기에서 평균 13.9점·4.0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공격지향적인 KCC에 수비에서도 특화된 모습으로 팀을 상위권으로 이끌었다.

김민수는 정규리그 51경기에서 평균 10.5점·6.4리바운드·1.6어시스트로 경쟁자들보다 개인 기록은 부족했지만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에 힘을 보탰다. 챔피언결정전에서 궂은 일에 앞장서는 등 베테랑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해 팀의 정상 등극을 주도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몰락한 명가 신한은행 돌파구 조차 안보이네

1 에이스 김단비 부상으로 개점휴업
2 먼로, 타팀 외인에 비해 기량 부족
3 백업진도 약해…신기성 감독 고민

여자프로농구 인천 신한은행의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우리은행 2018~2019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8경기를 치른 현재 1승7패의 부진에 빠져 있다. 지난 10일 삼성생명에게 68-63으로 승리를 거둔 이후 내리 5연패를 당했다. 5연패를 당한 과정도 좋지 않다. OK저축은행에게 패한 경기만 3점차 접전(67-70)이었을 뿐 4경기는 모두 15점차 이상의 대패였다. 12일 부천 KEB하나은행에게는 43-82, 26일 아산 우리은행에게는 45-74로 무기력하게 패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위기를 극복할만한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몸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외국인선수 쉐키나 스트릭렌(28)의 대체선수로 부랴부랴 영입한 자신타 먼로(30)는 신장(194cm)은 크지만 기량면에서 타 팀 외국인선수들에 미치지 못한다. 3경기에서 평균 11.7점을 올리는 데에 그쳤다. 심지어 26일 우리은행과의 경기를 앞두고 허리 통증을 호소해 경기에 나서지도 못했다. 또한 에이스 김단비(28)도 꼬리뼈 부상으로 개점휴업 중이다. 외국인선수와 팀의 주득점원이 빠진 채 차포 떼고 경기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대체하는 백업 멤버진이 두꺼운 것도 아니다. 오죽하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선민, 최윤아 코치라도 뛰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신한은행 신기성(43) 감독의 주름이 깊어져만 간다. 신 감독도 특별한 방도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는 28일, "선수들의 자신감과 분위기가 더 떨어질까 걱정이다. 분위기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잘 다독이면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30일 OK저축은행과의 홈경기에서 5연패 탈출과 함께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 신기성 감독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평가는 2017~2018시즌 활약 기준 원주 DB 정규리그 우승 이끈 두경민 KGC센터 오세근·KCC 슈터 이정현 SK 챔프전 우승 공신 김민수도 후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CMS와 함께하는 2018 동아스포츠대상' 시상식이 12월 1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된다. 동아스포츠대상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5대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 해당 종목의 '올해의 선수'를 선정한다. 경기장에서 드러나는 기량 뿐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의 평가가 더해지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최고의 상이다. 외국인선수를 제외한 국내선수로 한정해 시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성공 컴백 김소니아 "주특기는 허슬플레이…궂은 일 내게 맡겨"

〈우리은행〉

바스켓볼 피플

처음엔 훈련이 힘들어 도망쳤지만 그게 후회가 돼 우리銀 복귀 결심 국내선수 뛰는 2쿼터 알토란 활약 "난 한국인…수비·리바운드엔 자신"

아산 우리은행이 '우리은행 2018~2019 여자프로농구'에서 28일 현재 7전 전승으로 리그 선두를 달리는데에는 김소니아(25·176cm)의 역할이 적지 않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팀에 복귀한 김소니아는 7경기에서 평균 17분여를 뛰며 5.29점·6.9리바운드·1.4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다. 주전에 비해 식스맨 선수층이 엷은 우리은행에 김소니아의 활약이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특히 국내 선수만 뛰는 2쿼터 그가 수비와 리바운드에서 많은 역할을 하자 우리은행은 큰 걱정을 덜었다.

루마니아 출신인 그는 현재는 없어진 혼혈선수 규정으로 2012년 10월 한국무대를 밟았다. 처음 우리은행에 합류했을 때 강도 높은 훈련에 적응하지 못했고, 향수병도 겪었다. 그래서인지 2014년 2월 도망치듯 한국을 떠났다. 루마니아로 돌아가 국가대표로 활약했고, 3X3선수로는 루마니아 랭킹 1위까지 차지한 뒤 올 여름 복귀를 결심했다. 우리은행도 홍보람의 임의탈퇴가 결정돼 샐러리 캡에 여유가 생겼고, 김소니아를 재영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타구단의 반대가 심했다. 김소니아는 혼혈귀화선수 규정에 따라 우리은행에 입단했지만 현재는 이 규정이 사라졌다. 1~2개 구단이 "기존에 영입한 선수라도 이제는 규정이 없어졌으니 우리은행이 김소니아를 등록하는 게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김소니아는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고,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등록에 문제될 게 없었다. 일부 구단은 김소니아의 컴백을 반대할 명분을 잃었다.



◀ 아산 우리은행 김소니아는 4년 만에 팀으로 돌아와 2018~2019시즌을 성공적으로 보내고 있다. 화려함 대신 궂은일에 앞장서는 그는 우리은행의 강도 높은 훈련도 잘 견뎌내는 등 한결 성숙함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제공 | WKBL

김소니아는 "팀이 연승을 하고 있어서 기쁘다. 팀이 좋은 결과를 이어가고 있는데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복귀를 결심한 배경은 많은 뒷이야기가 있지만 한국에서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며 "다시 와서 잘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복귀를 결심했던 순간을 돌아왔다.

한국인 아버지와 루마니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소니아는 "나는 한국 사람이니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말로 모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소니아는 표현이 서툴긴 하지만 한국말을 잘 알아듣는다. 한국말을 잘 구사하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 했다.

김소니아는 "우리은행의 훈련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 괜찮다. 잘 견디고 있다"며 "훈련 강도는 이미 알고 있었고, 돌아올 때 마음을 다잡았고 준비도 많이 했다"고 웃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팀을 위한 헌신을 다짐했다.

"한국 무대에서 궂은 일을 가장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 루마니아에서의 원래 플레이 스타일도 비슷했다. 나는 원래 허슬 플레이에 강했다. 지금도 득점보다 수비와 리바운드가 먼저다." 최용석 기자

"이번에는" "이번에도" KB-우리銀 리턴매치

KB, 오늘 첫 판 패배 설욕 별러

아산 우리은행과 청주 KB스타즈는 '우리은행 2018~2019 여자프로농구' 2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정규리그 2라운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은행은 7경기를 치러 모두 승리를 거뒀고, KB스타즈는 6승1패를 기록 중이다.

두 팀은 지난 16일 우리은행의 홈인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시즌 첫 맞대결을 펼쳤다. 우리은행이 접전 끝에 59-57로 2점차 승리를 거뒀다. 우리은행은 고비로 생각했던 KB스타즈와의 일전을 승리로 장식하면서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반대로 KB스타즈는 우리은행 전이 올 시즌 유일한 패배다.

우리은행과 KB스타즈는 29일 청주에서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펼친다. 올 시즌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는 KB스타즈에게 우리은행은 창단 첫 우승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선수 구성 면에서는 밀릴 것이 없다. 특히 센터 박지수(20·196cm)가 있기 때문에 제공권 싸움에서 우위에 있다. 또한 40분 내내 우리은행의 도움 수비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도 우리은행의 벽에 막혔지만, 격차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선수들이 '우리은행을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맞대결에서 이기는 경기가 많아지는 수밖에 없다.

우리은행은 1라운드에서 승리했지만, KB스타즈가 갈수록 버거워 지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올 시즌에는 외국인선수(크리스탈 토마스)에게서 안정적인 득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박혜진(28)~임영희(38)~김정은(31) 트리오의 부담이 커졌다. 다만 박다정(25)과 김소니아(24)의 기량이 눈에 띄게 발전했다는 점은 엄청난 수확이다.

'미리 보는 챔피언결정전' 제2막이 여자농구 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